

신분상승

Sozialer Aufstieg

1. 개념 정의

신분상승은 개인이 신분 간, 혹은 계층 간 수직 상승하는 이동을 말한다. 신분간의 이동은 직업이나 교육, 사회적 관계의 변화를 통해 이루어진다. 신분상승은 계층의 차이가 없어진 근대에 와서야 비로소 비롯된 것은 아니다. 신분사회에서도 신분상승은 가능했으나 동시대인들은 신분상승을 신분사회의 근간을 무너트릴 수 있는 부정적인 것 혹은 사회악으로 보았다.

2. 모티프 유형

1) 결혼을 통한 신분상승

결혼은 신분상승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시민계급의 딸이 왕족이나 귀족과 결혼하여 왕족이 되거나, 귀족이 되는 경우이다. 신분이 엄격히 구분되었던 사회에서 결혼을 통한 신분상승은 거의 불가능했다. 이러한 예는 쉴러의 『간계와 사랑』에서 잘 나타난다. 귀족 출신인 궁정총리의 아들 페르디난드는 시민처녀 루이제를 사랑한다. 그러나 아버지의 간계에 속아 페르디난드는 루이제가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고 오해하여 그녀를 독살하고 자신도 죽는다.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음으로 끝나는 이 작품은 신분을 뛰어넘는 결혼이 신분사회였던 당시에는 불가능했음을 보여준다.

2) 교육을 통한 신분상승

시민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신분상승은 교육을 통해 이루어졌다. 시민들은 성직자가 되거나 법률가로 관직에 나아감으로써 신분상승을 성취할 수 있었다. 자본주의 시대 노동자들은 자식들에게 전문적인 대학교육을 시킴으로써 시민적 삶의 터전을 마련해 주었다.

라아베의 『굶주리는 목사』는 가난한 소도시의 소시민이 어떻게 신분상승을 성취하고 실패하는 가를 보여준다. 구두공의 아들 한스는 일찍이 아버지를 여의고 굶주림에 시달린다. 사랑에 굶주리고 지식과 명예에 굶주린 그는 비상한 노력으로 갖은 난관을 극복하고 학업을 마쳐 결국 시골 목사가 된다.

3) 종교에서의 신분상승

종교 내에서는 서품화로 신도들 간의 서열을 구분한다. 종교적인 사회에서는 높은 서열에 오름으로 사회적 신분상승을 달성하기도 한다.

4) 군대에서의 신분상승

군대는 계급의 서열화가 엄격한 조직이다. 계급의 상징인 군복은 서열의 위력을 상징한다. 군국주의 사회에서는 이러한 서열화가 사회 깊숙이 침투해 있다. 전쟁에서는 무공을 쌓거나 부상으로 계급 상승을 달성하기도 한다. 군대 내에서의 부당한 계급 서열화는 사병들이 봉기를 일으키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5) 노동자에서 노동 관리자로, 평사원에서 관리직으로 신분상승

노동자들 가운데 조직력이 있거나 전문적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관리직으로 신분이 상승되기도 한다. 노동운동 시기에는 노동연대로부터 이탈한 노동자가 자본가 세력과 영합하여 자본가의 이익을 위해 관리직으로 발탁되어 노동자들을 감시하는 역할을 맡기도 했다.

6) 직업 및 경제력을 통한 신분상승

상인들의 사회적 상승은 중세부터 상업의 영역에서 행해졌다. 초기 중세 사회에서 상인들의 신분은 사회의 주변부에 위치했다. 그러나 국제교역이 활발해지면서 상인 계급의 신분은 급격히 변화되었다. 금융자본가가 형성되면서 상인들은 도시의 지배적인 권력가로 자리 잡았다. 오랜 동안의 사업상의 성공은 사업 외부에서도 영향력 있는 세력으로 인정받았으며 이를 통해 신분의 수직적 상승이 이루어지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귀족의 소유지를 획득함으로써 귀족 신분에 접근하여 귀족의 생활방식을 따르기도 했다. 또한 전문적인 상업 교육을 받음으로써 신분상승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도 했다. 폰타네의 『트라이벨 부인』은 경제적 부를 얻기 위해 사랑하는 남자를 버리고 결혼하는 한 여인의 경우를 보여준다. 주인공 엔니는 슈밋트와 결혼했지만 벼락부자인 트라이벨로부터 구혼을 받아 슈밋트를 버리고 신분상승을 위해 트라이벨과 결혼한다.

7) 간계 및 속임수를 통한 신분상승

혼동으로 인한 신분상승의 예도 문학작품에서 종종 나타난다. 켈러의 『옷이 날개다』에서 양복 직공은 마침 옷을 잘 입고 있었던 관개로 남의 마차를 얻어 타고 가게 된다. 그를 귀족으로 오인한 여관집 주인으로부터 융숭한 대접을 받고 훌륭한 집안의 아가씨와 약혼까지 하게 된다. 남의 옷을 빌려 입어 신분을 오인 받아 벌어지는 혼동의 예는 희극에서 즐겨 다루어지는 소재이다. (‘변신’, ‘변장’ 모티프 참조)

3. 서사구조

	내용
원인	신분상승을 위해
	사랑을 얻기 위해
	권력, 재물을 얻기 위해
	사회에서 인정받기 위해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과정	행복한 결혼
	불행한 결혼
	부정적인 수단(사기, 간계 ...)을 동원해
	경제력의 힘으로
	폭력 등 강압적인 힘으로
결과	방황, 방랑
	신분상승에 성공, 실패
	병, 죽음, 자살
	변화된 일상에 적응
	다시 원래의 일상으로 돌아감

4. 유형 및 서사구조의 예: 『에피 브리스트 Effi Briest』

작가	테오도르 폰타네 Heinrich Theodor Fontane(1819-1898)
장르	소설
생성년도	1896년
등장인물	<p>에피 브리스트: 프로이센 지방 귀족가의 딸. 신분상승을 바라는 부모의 뜻에 따라 어린 나이에 인슈테텐 남작과 결혼한다.</p> <p>인슈테텐 남작: 20살 연상인 에피의 남편. 인슈테텐 지역의 남작이며 포머른 지방 의회장관. 원칙을 중시하며 사회적 체면과 위신을 중시하는 인물.</p> <p>크라파스 소령: 인슈테텐 백작과 달리 감정적인 인물. 에피의 정부</p> <p>로스비타: 에피 딸의 유모</p>

4.1. 내용 요약



에피는 17세 되던 해 부모님의 권유로 스무 살 연상인 인 슈테텐 남작과 결혼한다. 결혼생활에 대하여 아무 것도 모르는 어린 신부 에피는 남편을 따라 시골 케신으로 간다. 에피는 남편의 무관심 속에 혼자 있을 때가 많아지자 케신에서의 생활을 지루해 하기 시작한다. 또한 집안 구석구석 배어있는 유령들의 소음과 기이한 풍경들에 에피는 불안해하지만 남편은 그녀의 불안을 이해하지 못한다. 에피는 딸을 출산한다.

지루함과 불안으로부터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던 에피 앞에 크람파스 소령이 나타난다. 인생경험이 많은 크람파스와 에피는 서로 좋아하게 된다. 그러나 두 사람 사이의 랑데부는 오래 지속되지 못한다. 남편이 직장을 베를린으로 옮기게 되자, 두 사람의 관계는 자연스럽게 정리된다.

베를린에서 에피는 행복한 생활을 하게 된다. 어느 날 에피가 집에 없는 사이, 남편이 크람파스 소령이 그녀에게 보냈던 편지를 발견하게 된다. 사랑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명예를 손상시켰다는 이유로 남편은 크람파스에게 결투를 신청하여 크람파스를 죽인다. 남편은 에피에게 이혼을 요구하며 아이는 자신이 맡겠다고 한다. 딸을 남편에게 빼앗기고 부모마저 에피가 고향으로 돌아오는 것을 꺼리자 에피는 유모와 함께 베를린의 허름한 집에서 살게 된다. 딸을 만나는 것이 그녀의 유일한 행복이지만 아버지의 영향 아래 딸마저 그녀에게서 멀어졌음을 확인하자 에피는 상실감으로 병에 걸린다. 병이 깊어지자 부모는 병든 딸을 친정집으로 데려간다. 그곳에서 에피는 숨을 거둔다.

4.2. 모티프 유형 및 서사구조

- 유형: 결혼을 통한 신분상승

- 서사구조: 신분상승을 원하는 부모님의 권유에 따라 자신보다 높은 신분의 남자와 결혼하지만 권태로운 결혼생활에 지쳐 연애행각을 벌이다 발각되어 남편으로부터 이혼을 강요당한다.

원인	신분상승을 위해 결혼: 자신보다 높은 신분의 남자와 결혼
과정	불행한 결혼생활: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정부를 갖게 됨, 이혼: 연애행각이 발각되어 이혼 당함

결과	신분상승에 실패: 고독, 절망, 병, 귀향, 죽음
----	-----------------------------

5. 작품 목록

아이헨도르프 Joseph Freiherr von Eichendorff: 『어느 건달의 생활 Aus dem Leben eines Taugenichts』 (1826)

켈러 Gottfried Keller: 『옷이 날개다 Kleider machen Leute』 (1856)

폰타네 Theodor Fontane: 『트라이벨 부인 Frau Jenny Treibel』 (1892), 『마틸데 피링 Mattilde Möhring』 (1906)

브레히트 Bertolt Brecht: 『아르투르 우이의 출세 Der aufhaltsame Aufstieg des Arturo Ui』 (1940/41)

6. 연계 모티프

결혼, 사랑, 이별, 방랑, 사기, 속임수, 변신, 변장, 죽음

※ <모티프 연계를 통한 스토리생성의 예>

모티프 연계	사랑 + 결혼 + 신분하강 + 죽음 + 은둔
스토리	고귀한 신분의 남자가 평범한 여자를 만나 사랑에 빠진다. 남자는 왕족으로서의 신분을 버리고 여자와 결혼하여 평범한 시민적 삶을 살아간다. 불의의 사고로 남자가 죽자 여자는 세상의 주목을 받는다. 여자는 세상을 피해 은둔자의 삶을 선택한다.